



08-02 (통권 280호)

200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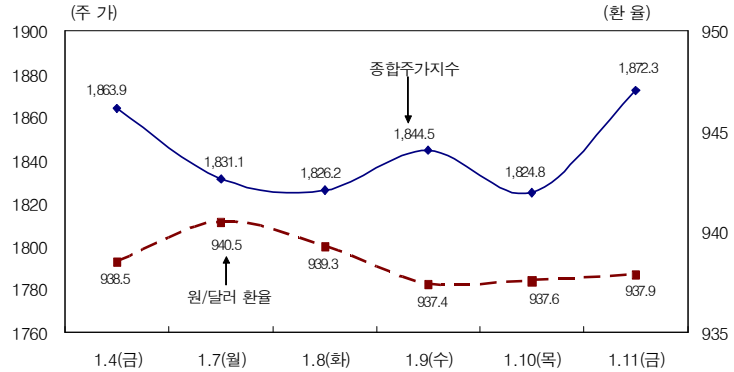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5대 주요 경제 현안과 새정부의 과제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1.4~1.1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5대 주요 경제 현안과 새정부의 과제	1
월간 경제 동향	21
□ 실물 부문 : 생산자 물가 급등세 지속	21
□ 금융 부문 : 국채금리 급락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 거시경제실 : 주 원 연구위원 (3669-4030,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5대 주요 경제 현안과 새정부의 과제

1. 개요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중 성장, 대외, 물가, 고용 금융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5대 주요 경제 현안'을 선정하였다.

2. 5대 주요 경제 현안

■ 성장잠재력 고갈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성장)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연평균 6.6%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4.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있던 투자 여력도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핵심인 자본 축적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13.4%(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9.6%)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 동안에는 9.9%로 하락(증가율 4.7%)하였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26.3억 달러(국내 설비투자의 4.3% 비중)에서 56억 달러(9.8% 비중)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2006년 109.3억 달러)

잠재성장률이 미래 중장기적인 경제의 성장 속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상당 기간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3~2006년 사이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4.9%보다 0.6%p 낮은 4.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인 홍콩(6.6%), 싱가포르(6.6%), 대만(4.6%)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수출 경기 둔화 (대외)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에 의한 미국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미 주택 가격지수 (S&P/Case-Shiller® Composite-20 Home Price Index 기준)는 2004년 18.7% 증가에서 2006년에 0.2% 증가, 2007년 3/4분기말에는 전년동기대비 5.5%의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주택 가격 급락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심으로 미국 주택 대출 시장에 신용 경색 위기를 유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신용 경색 위기가 2007년 4/4분기에 들어 미국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다. 미국의 12월 ISM(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가 47.7로 기준치인 50을 하회하였고, 12월 실업률이 5.0%로 급등하는 등의 미국 경제의 침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우려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질 경우,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과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국내 수출이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 세계 경제 전체가 급격한 성장 둔화를 보일 경우 수출 경기 하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4.2%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현재 한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달하는 중국 경제가 연 11%대의 고성장을 지속하였던 데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IMF, UN 등 주요 국제 기관들이 2008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동반 부진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경기의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 불안 (물가)

국내 물가가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대 초반에 불과하였으나 4/4분기 이후 3%대로 급증하였다. 특히 서민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가 2007년 1/4분기에 0.2%p에서 4/4분기에는 1.2%p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물가 불안의 주된 원인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에 있는데,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2007년 1/4분기에 배럴당 평균 55달러에서 12월말에는 89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경제 심리 악화로 내수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통계청 CSI와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전경련 BSI가 모두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양 지수 모두 2007년 1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전경련 BSI 세부 항목중 재산성 부문이 2008년 1월에 들어 100을 하회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도 2007년 12월의 106.8에서 1월에 101.7로 크게 낮아져 전반적인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한 민생 경제 악화 (고용)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로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9년에 연평균 2.4%에서, 이후인 2002~06년에는 3.4%로 1.0%p가 높아졌다. 특히 15~29세 연령층의 청년실업률의 경우 같은 기간 5.5%에서 7.4%로 1.9%p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 상황 악화는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는 70년대(1972~79년) 평균 0.5에서 외환위기 이전(1991~97년)에 0.32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0.27로 더욱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수는 1991~97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6.29만 명에서 2002~06년에 5.99만 명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로 '괜찮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근로 소득 확충 미흡에 의한 구매력 붕괴가 우려된다. 연구원에 의하면 1995~2005년의 기간 동안 전체 일자리수는 151만개가 증가했으나, 대기업 일자리는 72만 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 각각 37만개 및 186만개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는 가계 전체의 실질 근로 소득 정체로 이어졌는데, 도시근로자 가

구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2~96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7.9%에 달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3.8% (특히 2003년 이후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8.0%에서 3.4% (2003년 이후 2.9%)로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근로 소득 확충 미흡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신용 경색 (금융)

부동산 경기가 급랭 신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 호조에 따르는 채권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2007년 하반기 이후 시중 금리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매매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 매도세 우위 비중은 58.3%로 1년 전인 2006년말의 40.3%에 비해 18%p가 상승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전국 APT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04% 상승에 그치고, 강남권의 경우에는 0.10%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전국의 주택 미분양 호수도 2006년말 7만 3,772호에서 2007년말 10만 건을 상회하는 등 주택 경기가 전형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주식 시장 호조에 따르는 은행권의 자금 부족의 영향으로 2007년 2/4분기말 5.00%에서 2007년말 5.76%, 2008년 1월 10일 현재 5.89%로 급등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고금리 지속으로 신용 경색이 유발될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은행권의 2007년 11월 현재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90.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의 주택관련대출 잔액도 2006년말 240.9조 원에서 2007년 11월말 244.9조 원으로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상승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CD금리 1% 상승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이자 부담만도 약 3.2조 원 (중기대출 이자증가분 1.5조 원 + 가계대출 이자증가분 1.7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3. 새정부의 과제

■ 3대 경제 정책 방향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는 2008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첫째, 시장을 통한 공정 경쟁 확립과 민간 자율성 확대로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역할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정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규칙의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조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공 부문이나 정책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기업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둘째,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의 고취를 통해 경제 마인드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정책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기업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 마인드가 회생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동인(動因)인 '성실과 근면'이 다시 최상의 선행이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기업·행정·복합 도시 건설 등과 같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원의 낭비 방지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 부처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경기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黨·政·靑의 정책 조율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 5대 세부 과제

이러한 경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긴급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절실하다.** 우선 투자 관련 규제의 합리적 완화, 기업 활동 관련 세법의 정비,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경제 교육 강화 등을 망라하는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관련 행정 윈스톱 서비스의 강화,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조성 계획 확대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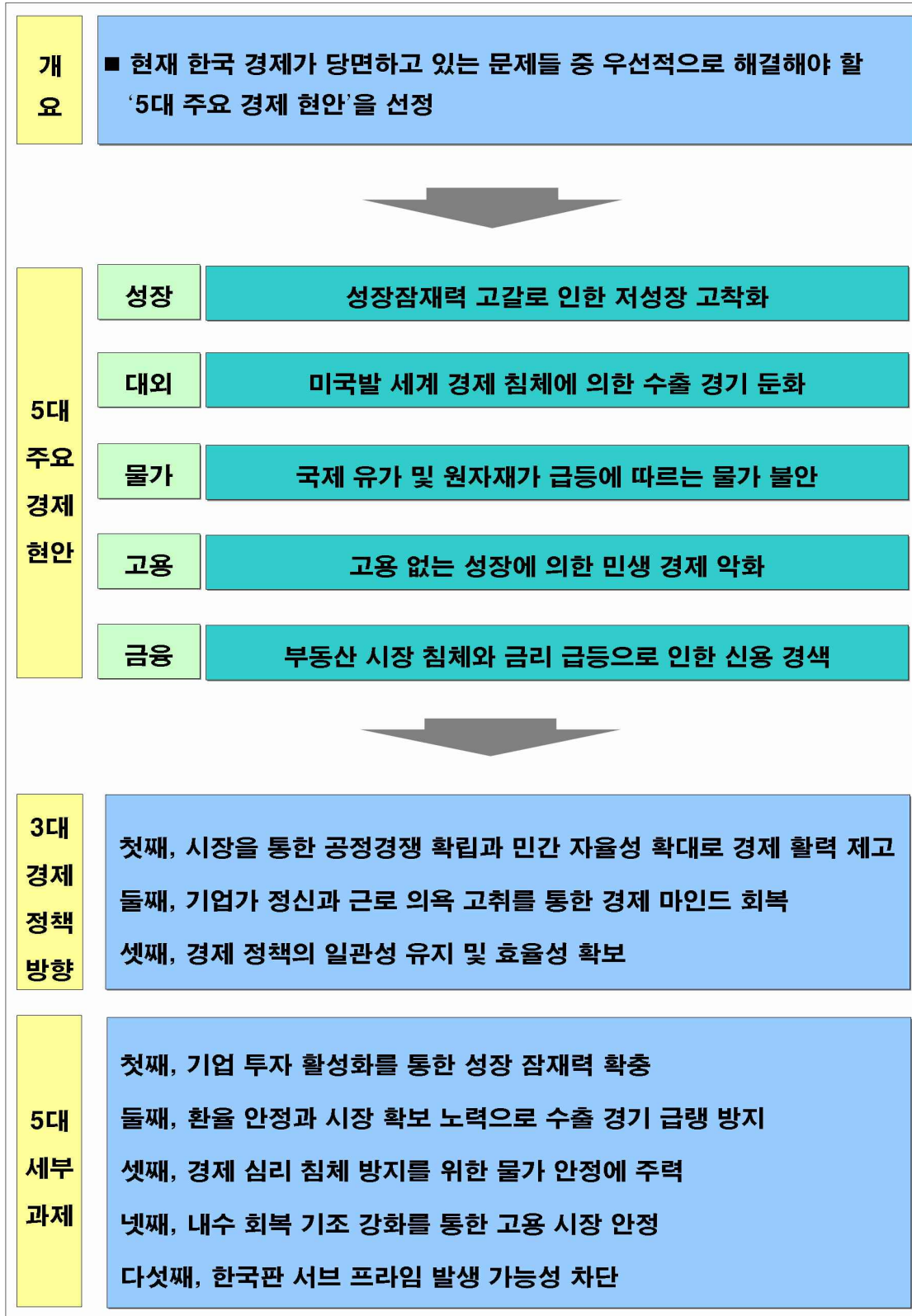
둘째, 환율 안정과 시장 확보 노력으로 수출 경기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의 강화와 같은 환율 안정 정책을 통한 수출 가격 경쟁력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동, CIS 산유국 등 구매력이 높아진 수출 시장에 대한 세일즈 외교 노력과,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 대한 홍보, 정부차원의 현지 마케팅 등으로 한미 FTA 체결로 볼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정부의 전반적인 금융 정책 기조는 자산·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하고 인위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국내 과잉 유동성의 완만한 흡수를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가 비용 상승 등으로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요금 동결은 아니지만, 원가 공개 등을 통해 급박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내수 회복 기초 강화를 통한 고용 시장 안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저소득층 사용 비중이 높은 재화에 대한 특소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제의 한시적 감면 등을 통해 실질 소비 여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2002년 소비 버블의 부작용을 상기하여, 경제 안정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건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여, SOC 투자 확대, BTL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 건설 경기를 보다 활성화시켜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 산업의 경기 급락도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판 서브프라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우선 국내외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수립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전반과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감독 당국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은행 대출 관행과 기업의 자금 운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등을 통해 민간의 신용 경색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5대 주요 경제 현안과 새정부의 과제 >



1. 개요

○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성장, 대외, 물가, 고용, 금융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5대 주요 경제 현안을 선정함

- 성장 : 성장잠재력 고갈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저성장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
- 대외 :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수출 경기 둔화
 - 미국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 수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증대
- 물가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 불안
 -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르는 국내 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 소비 심리 및 기업 투자 심리 악화로 내수 회복세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고용 :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한 민생 경제 악화
 -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고용 창출력 악화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어, 가계 부문의 근로 소득 확충 미흡으로 소비 구매력 약화가 지속
- 금융 시장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신용 경색
 - 부동산 시장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중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최근 은행권 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의 신용 경색 우려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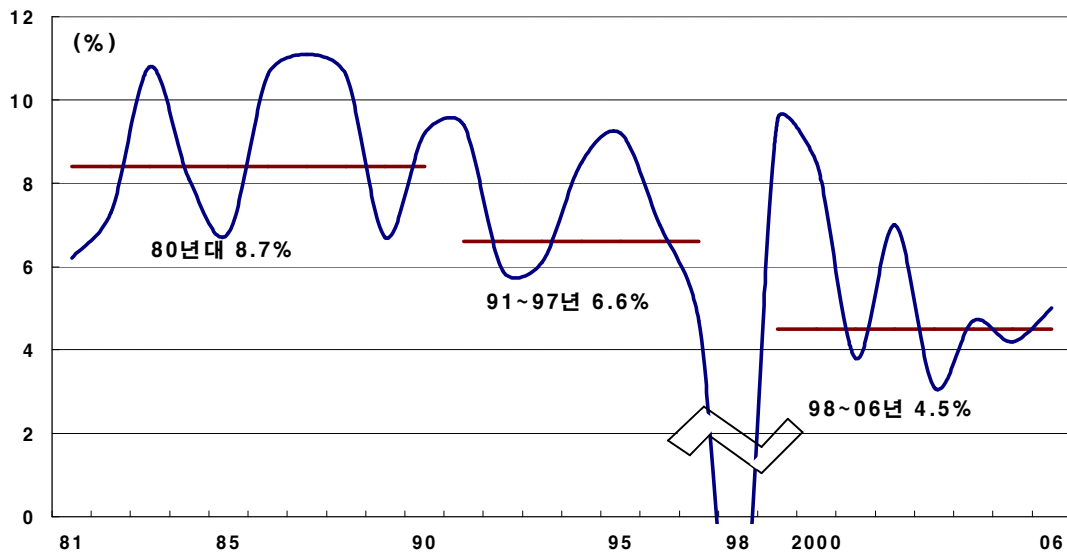
2. 5대 주요 경제 현안

1) 성장잠재력 고갈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성장)

○ (현황)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낮아짐

-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에 연평균 6.6%에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에는 4.5%로 하락

<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주 : 1) 잠재성장률은 단순추세법(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2) 기간중 연평균임.

- 외환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급락은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존재하던 투자 여력도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인 자본 축적이 정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외환위기 이전인 1991~97년 국내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9.6%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2006년의 기간 동안에는 4.7%로 급락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설비투자 비중은 13.4%에서

9.9%로 하락함

- 반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이전 연평균 26.3억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56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2006년 109.3억 달러)

<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관련 지표 추이 >

	1980년대	1991~97년	1998~2006년
실질설비투자 증가율 (%)	8.5	9.6	4.7
명목설비투자/명목GDP (%)	13.1	13.4	9.9
해외투자 (억 달러)	3.2	26.3	56.0
해외투자/명목설비투자 (%)	1.5	4.3	9.8

자료 :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주 : 기간중 연평균임.

○ (문제점) 이러한 자본 축적 저하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함

- 이미 2003~2006년 사이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4.9% 보다 0.6%p 낮은 4.3%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주변 경쟁국들인 홍콩(6.6%), 싱가포르(6.6%), 대만(4.6%)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경쟁국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전세계	4.0	5.3	4.8	5.4	4.9
NIEs	3.2	5.9	4.7	5.3	4.8
한국	3.1	4.7	4.2	5.0	4.3
홍콩	3.2	8.6	7.5	6.9	6.6
대만	3.5	6.2	4.1	4.7	4.6
싱가폴	3.1	8.8	6.6	7.9	6.6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07.

2)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수출 경기 둔화 (대외)

○ (현황) 서브 프라임 부실 문제에 의한 미국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

- 미국 주택 경기가 급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브 프라임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됨
 - 미 주택 가격지수 (S&P/Case-Shiller® Composite-20 Home Price Index)는 2004년 18.7% 증가에서 2006년에 0.2% 증가, 2007년 3/4분기말에는 전년동기대비 5.5% 감소세로 반전
 - 이에 따라 2006년말 현재 전체 모기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에 달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됨에 따라, 연체율이 2003년말 11.5%에서 2007년 3/4분기말 16.3%로 급등
 - 이러한 신용 경색 위기로 구매력 약화, 내수 시장 침체, 기업 활동 부진, 고용 시장 악화, 다시 구매력 약화의 악순환 조짐이 나타남
 - ※ 미 ISM(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는 11월 50.8에서 12월에 47.7로 기준치(50)를 하회하였으며, 실업률도 3월 4.4%에서 12월에 5.0%로 급등 (2005년 카트리나 사태 이후 최고치)

< 미국 고용 및 생산 지표 추이 >

	2005	2006	2007				
			2/4	3/4	4/4		
					11월	12월	
실업률 (%)	5.1	4.6	4.5	4.7	4.8	4.7	5.0
ISM 제조업 지수	55.5	53.9	55.2	52.9	49.8	50.8	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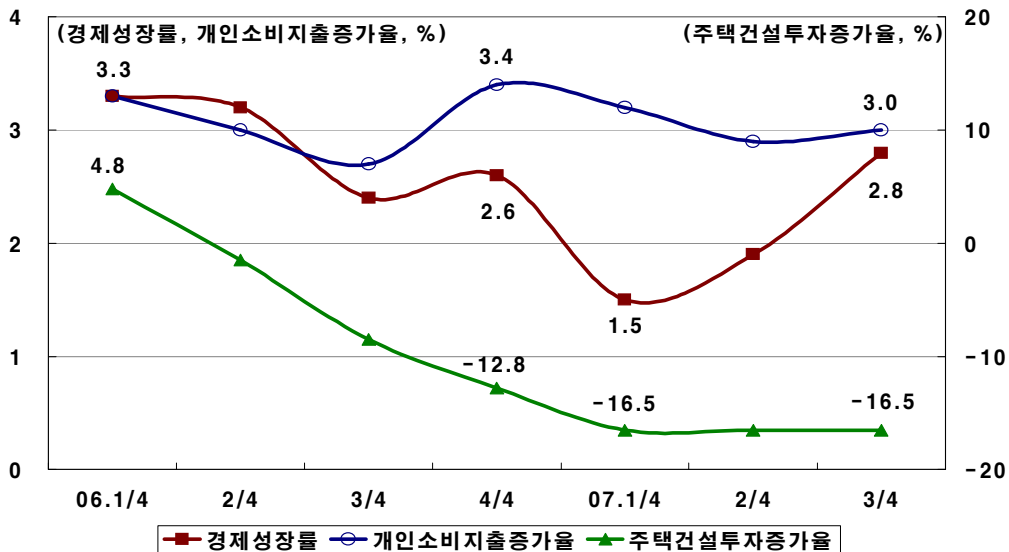
자료 : 미 노동부, 미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주 : ISM 지수 기준치는 50.

< 참고 >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 호조 지속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5%에서 3/4분기에 2.8%로 호전

- 그러나 이는 약달러에 따르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 등 대외 요인과 기업 부문 투자 호조에 기인하고 있고, 4/4분기 속보치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4/4분기 성장률부터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주요 미국 경제 지표 추이 >



자료 : 美 경제분석국.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과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기 상승세가 제한되고,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06년 현재 미국의 명목 GDP는 약 13조 2,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약 28% (명목 GDP 순위 2위인 일본의 약 3배, 4위인 중국의 약 5배)에 달할 정도로 미국 경제의 비중은 막대함
 -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미 서브 프라임 문제의 영향으로 2007년의 5.2%에서 0.4%p 하락한 4.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UN도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1차적으로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2차적으로는 선진국들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 경제들이 침체에 빠질 것임을 경고

<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2007년 10월 기준) >

(%)

		2005	2006	2007(E)	2008(E)
경제 성장률	세계	4.8	5.4	5.2	4.8
	선진국	2.5	2.9	2.5	2.2
	미국	3.1	2.9	1.9	1.9
	유로 지역	1.5	2.8	2.5	2.1
	일본	1.9	2.2	2.0	1.7
	NIEs	4.7	5.3	4.9	4.4
	신흥시장 및 개도국	7.5	8.1	8.1	7.4
	중국	10.4	11.1	11.5	10.0
	ASEAN-4	5.1	5.4	5.6	5.6
	세계 교역량 증가율	7.5	9.2	6.6	6.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7년 10월).

주 : ASEAN-4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임.

○ (문제점) 2007년 국내 수출 경기는 수출 비중 1위국인 중국 경제의 고성장으로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미국 경제 성장 둔화로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 수출 경기 하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14.2%로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 2007년 현재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달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연 11%대의 고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
-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지게 될 경우 이러한 중국 효과도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수출 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한국 수출 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량증가율 추이 >

	01	02	03	04	05	06	07(E)	08(E)
세계 경제성장률	2.6%	3.1%	4.1%	5.3%	4.8%	5.4%	5.2%	4.8%
세계 교역량 증가율	0.0%	3.4%	5.3%	10.6%	7.4%	9.2%	6.6%	6.7%
한국의 수출 증가율	-12.7%	8.0%	19.3%	31.0%	12.0%	14.4%	14.2%	-

자료 : IMF, 산업자원부.

주 :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증가율은 IMF 기준임.

3)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에 따르는 물가 불안 (물가)

○ (현황) 국내 물가는 2007년 3/4분기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에 들어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냄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7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대 초반에 불과하였으나, 4/4분기 이후 3%대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서민의 체감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 1/4분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가 0.2%p에 불과하였던 것이 4/4분기에는 1.2%p까지 확대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7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생산자물가	1.8	2.5	2.0	3.9	3.4	4.4	5.1
소비자물가	2.1	2.4	2.3	3.3	3.0	3.5	3.6
생활물가	2.3	3.0	2.8	4.5	3.9	4.9	4.8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4/4분기 생산자 물가의 경우 10월과 11월 증가율의 평균치임.

- 최근의 국내 물가 불안 현상은 국제 유가 폭등에 따르는 수입 물가 급등세가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 유가는 2007년 1/4분기에 배럴당 평균 55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12월말에는 89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음
 - 특히 2008년에 들어 WTI 유가가 100달러 내외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국제 석유 시장에서의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
 - 한편 2007년 對中 수입이 전체 수입의 17.7%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9%에 달하고 있어 수입 물가 상승에 일정 부

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 유가 및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단위 : 달러/배럴, 전년동기대비 %)

		2007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유 가	두바이유	55.0	64.8	70.0	82.8	81.3	84.1	89.3
	WTI유	57.6	64.9	75.3	90.4	94.5	88.7	96.0
물 가	원재료물가	-1.7	0.4	3.8	25.8	20.5	31.0	-
	수입물가	1.2	2.8	2.0	15.0	11.2	18.8	-
	생산자물가	1.8	2.5	2.0	3.9	3.4	4.4	5.1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주 : 1) 유가의 분기 수치는 일일 증가 평균, 월 수치는 말일 증가 기준임

2) 수입물가는 원화(표시가격) 기준임

3) 물가 지수 4/4분기의 경우 10월과 11월 증가율의 평균치를 사용함.

○ (문제점) 국내 물가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 심리 및 기업 투자 심리 악화로 내수 회복세가 크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 현재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통계청 CSI와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전경련 BSI가 모두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2007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됨
- 특히 전경련 BSI 세부 항목중 채산성 부문이 2008년 1월에 들어 100을 하회하고 있으며, 투자 부문도 2007년 12월의 106.8에서 101.7로 크게 낮아져 전반적인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경제 심리 지표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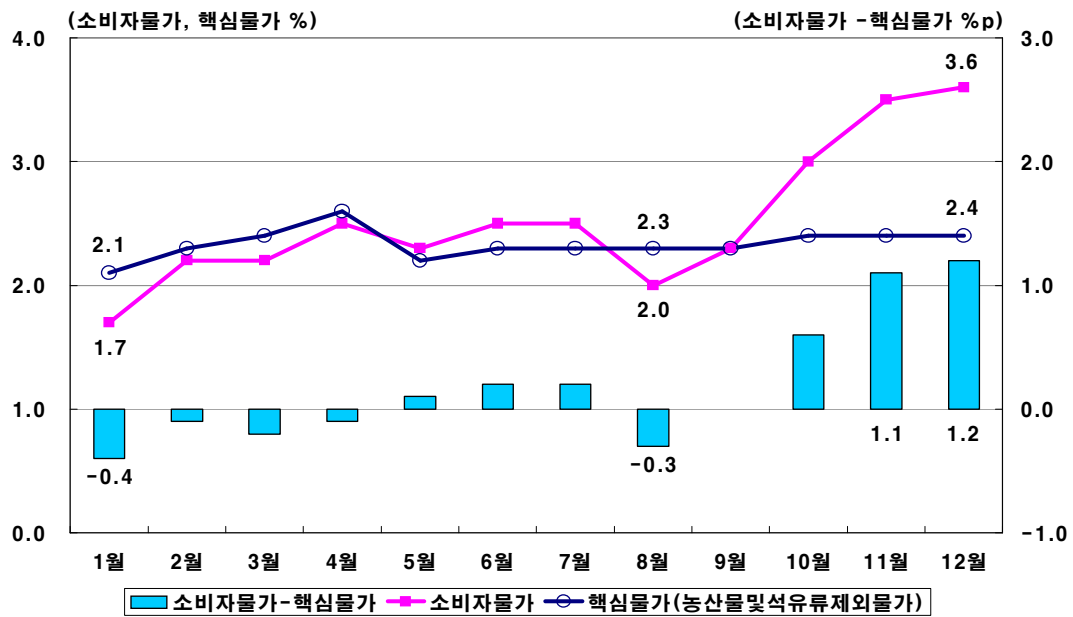
	07년 3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월
통계청 CSI	97.8	101.5	103.2	103.3	102.0	-	-
전경련 BSI	112.3	105.6	111.8	116.3	112.4	103.4	103.0
채산성	111.0	100.6	110.5	111.3	108.5	101.5	99.8
투자	104.7	108.7	105.6	105.3	106.4	106.8	101.7

자료: 통계청, 전국경제인연합회.

< 참고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차이 확대

- 2007년 10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근원물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간의 격차가 발생
- 이는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 현상이 유가 상승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 및 근원물가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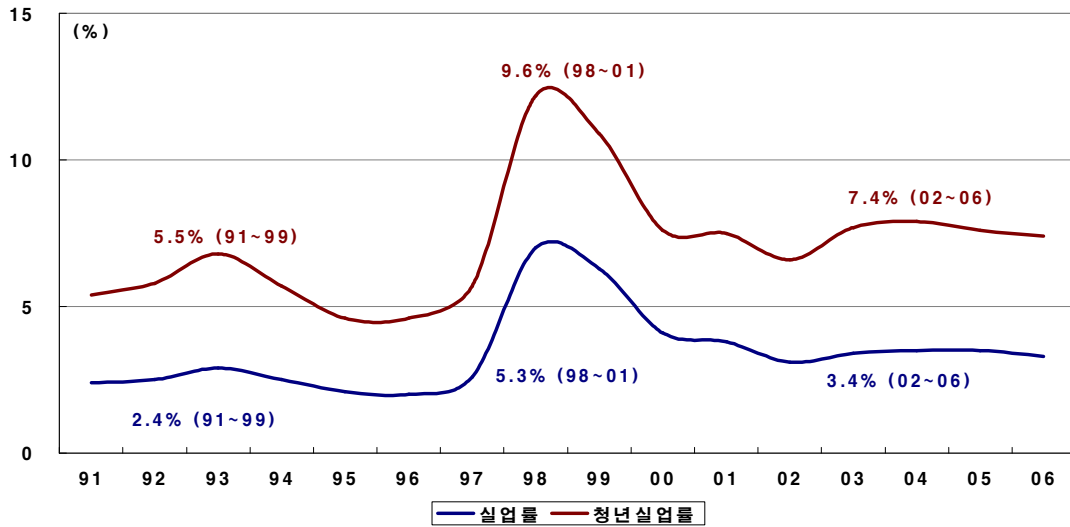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4)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한 민생 경제 악화 (고용)

○ (현황)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의 장기화로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구조적 변화가 관찰됨

-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99년에 연평균 2.4%에서, 이후인 2002~06년에는 3.4%로 1.0%p가 높아짐
 - 특히 15~29세 연령층의 청년실업률의 경우 같은 기간 5.5%에서 7.4%로 1.9%p나 증가함

<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구직 기간 1주 기준임.

- 경제 규모와 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와 같이 실업률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경제의 고용탄성치 (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는 70년대(1972~79년) 평균 0.51에서 외환위기 이전(1991~97년)에 0.32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0.27로 추가 하락함
 -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취업자수는 1991~97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6.29만 명에서 2002~06년에 5.99만 명으로 낮아짐

<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추이 >

	1972 ~79	1981 ~90	1991 ~97	1999 ~01	2002 ~06
고용탄성치 ^A (취업자수증감률/경제성장률)	0.51	0.34	0.32	0.40	0.27
기간중 평균 취업자수 ^B (만 명)	1,208.4	1,566.8	1,988.9	2,100.6	2,257.4
경제성장률 1%당 창출 취업자 (B×A/100, 만 명)	6.11	5.30	6.29	8.44	5.9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1) 취업자수는 구직 기간 1주 기준
 2)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980년과 1998년은 제외.

○ (문제점)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로 '괜찮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계 근로 소득 확충 미흡에 의한 구매력 약화가 우려됨

- 1995~2005년의 기간 동안 전체 일자리수는 151만개가 증가했으나, 대기업 일자리는 72만 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과 소기업에서 각각 37만개 및 186만개가 증가¹⁾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2~96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7.9%에 달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3.8% (특히 2003년 이후 2.7%)에 불과
- 이와 같은 근로 소득 확충 미흡으로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8.0%에서 3.4% (2003년 이후 2.9%)로 하락
- 여기에 간접적으로 가계 소비의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 비경직성 가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06년에 3.1% (특히 2003~06년 2.0%)로 더 낮은 수준을 기록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제 유가 상승, 보험 및 연금 제도의 확대, 조세 증가 등의 원인으로 경직성 지출이 급증하였기 때문

< 2007년 고용 상황 >

(단위: %)

	1992~96	1997~99	2000~06	
			2003~06	
실질 근로소득 증가율	7.9%	-3.5%	3.8%	2.7%
실질 가계지출 증가율	8.0%	-1.3%	3.4%	2.9%
실질 비경직성 가계지출 증가율	5.6%	-3.8%	3.1%	2.0%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중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 기준.

- 주 : 1) 실질 증가율은 각 항목의 명목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차감하여 도출함
 2) 본 보고서에서 비경직성 가계지출은 가계지출에서 연료비, 교육비, 교통비,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지급 이자를 제외한 지출로 정의함.

1) 현대경제연구원,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경제주평, 2007. 6. 참조.

5)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인한 신용 경색 (금융 시장)

○ (현황) 부동산 경기가 급랭 신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식 시장 호조에 따르는 채권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2007년 하반기 이후 시중 금리 급등세가 지속

-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매매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 매도세 우위 비중은 58.3%로 1년 전인 2006년말의 40.3%에 비해 18%p가 상승
 - 이에 따라 전국 APT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2.10%에서 0.04%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 강남권의 APT 매매가격의 경우 2.42% 증가에서 0.10% 감소세로 전환
 - 전국의 주택 미분양 호수도 2006년말 7만 3,772호에서 2007년말 10만 건을 상회

< 주요 주택시장 경기 지표 추이 >

(%)

	2006	2007			
		1/4	2/4	3/4	4/4
매도/매수세 동향					
매도세 우위	40.3	57.9	61.0	55.8	58.3
매수세 우위	16.2	5.1	3.7	7.1	4.6
APT매매가격지수 상승률					
전국	2.10	0.09	0.03	0.15	0.04
서울	3.67	0.16	0.05	0.22	0.14
강남	2.42	0.04	-0.07	0.06	-0.10
주택 미분양 (호)	73,772	73,162	89,924	98,235	100,887

자료 : 국민은행.

- 주 : 1) 매도/매수세 동향은 매도세 우위, 매수세 우위, 보합을 부동산 중개업체에 선택하도록 하여 작성된 비율로, 매도세 우위가 100%이면 모두 매도세 우위를 응답한 것임
- 2) APT매매가격지수(2003년 9월 =100) 상승률은 전월대비증가율의 기간 말월지표임
- 3) 주택 미분양은 해당 기간 말월 기준이며, 2007년 4/4분기는 11월 기준.

- 콜금리는 2007년 3/4분기 이후 정책 금리 목표 수준인 5.00%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나, CD 금리는 2007년 2/4분기말 5.00%에서 2008년 1월 10일 현재 5.89%로 급등

- 이러한 CD 금리 상승세는 다른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고채 3년물 수익률도 상승세를 지속중이나, 2008년에 들어서는 CD 금리가 3년물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단고장저' 현상마저 발생

< 주요 금리 및 채권 수익률 추이 >

(%)

	2006	2007				2008.1.10.
		1/4	2/4	3/4	4/4	
콜금리(1일)	4.60	4.63	4.52	4.98	5.00	5.01
CD금리(91일)	4.92	4.94	5.00	5.35	5.76	5.89
국고채(3년)	4.86	4.78	5.26	5.46	5.89	5.73

자료 : 한국은행.
주 : 기말 기준.

- CD 금리 급등은 은행권의 주된 수신 수단인 저축성 예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고 확보를 위해 은행채와 CD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단기에 채권 시장에 공급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 2007년 11월말 현재 은행권의 저축성 수신은 487.1조 원으로 2006년말의 488.7조 원에 비해 감소
- 반면 단기시장성 수신과 은행채를 합한 시장성 수신 잔고는 2006년말 99.6조 원에서 2007년 11월말에 269.3조 원으로 급증
- 특히 CD와 은행채를 통한 수신 잔고가 같은 기간 각각 28.0조 원 및 29.5조 원씩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

< 은행권의 수신 잔액 추이 >

(단위 : 기말 잔액, 조 원)

	2004	2005	2006	2007.11
은행계정	642.6	685.9	756.1	815.1
저축성예금	463.1	469.6	488.7	487.1
정기예금	254.3	245.4	259.6	274.8
시장성수신	132.5	160.9	207.9	269.3
단기시장성	64.0	84.2	99.6	131.5
CD	39.2	55.6	66.7	94.7
은행채	68.5	76.7	108.3	137.8

자료 : 한국은행.
주 : 시장성수신 = 단기시장성 + 은행채, 단기시장성 = CD + RP + 표지어음.

○ (문제점)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용 경색이 발생할 우려가 증대

- 은행권의 기업 대출 부문의 경우 2007년 11월 현재 대기업 대출은 기업 대출금의 9.1%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90.9%에 달함 (2006년말 대비 기업 대출금 증가분의 약 89%를 중소기업 대출 증가가 기여)
- 또한 2007년에 들어 증가세는 약화되었으나, 가계 부문의 주택관련대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 (은행권의 주택관련대출 잔액은 2006년말 240.9조 원에서 2007년 11월말 244.9조 원으로 역시 증가세를 지속)
- 가계 및 중소기업 부문의 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 급증이 우려
 - CD 금리 1% 상승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은행권 대출 이자 부담은 약 3.2조 원 (중소기업대출 이자증가분 1.5조원 + 가계대출 이자증가분 1.7조 원)이 증가
 - 특히 가계 부문의 경우 은행권 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 관련 대출 (가계대출금의 약 68%)이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에 빠질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가 존재
 - 또한 최근 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비용 부담마저 가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은행권의 기업 및 가계 대출 추이 >

(단위: 기말 잔액, 조 원)

	2004	2005	2006	2007. 11월
기업 대출금	259.8	275.4	317.5	395.5
대기업	24.1	28.7	27.3	36.1
중소기업	235.7	246.7	290.2	359.4
가계대출금	276.3	305.5	346.2	360.7
주택관련대출	-	208.4	240.9	244.9
(주택담보대출)	169.2	190.2	217.1	221.5

자료 : 한국은행.

주 : 주택관련대출이란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매매계약 중도금 등 주택과 관련된 포괄적인 대출을 의미하며, 한은에서 2005년 4/4분기부터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 > CD 금리 변동에 따르는 대출 이자 부담

○ CD 금리 1% 상승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은 약 3.2조 원
(중소기업 대출 이자 증가분 1.5조원 + 가계대출 이자 증가분 1.7 조 원
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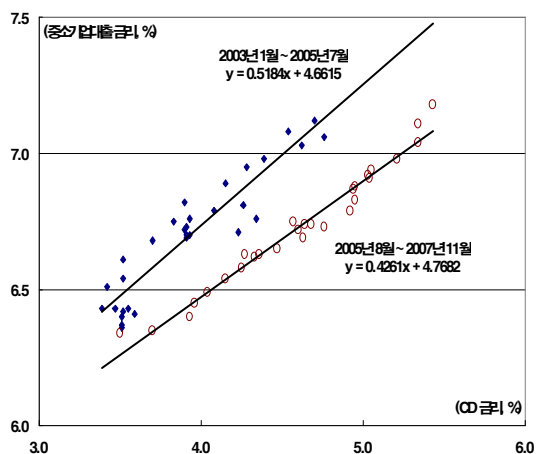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고려할 때, CD 금리가 1% 상승시, 이자 부담만 1.53조 원이 증가

· 359.4조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 × 0.4261% (CD 금리 1% 상승시 중소기업대출 금리 상승폭) ≃ 1.53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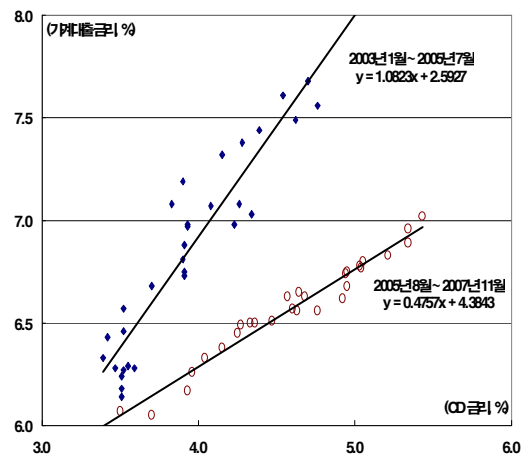
-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을 고려할 때, CD 금리가 1% 상승시, 이자 부담만 1.72조 원이 증가

· 360.7조 원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 × 0.4757% (CD 금리 1% 상승시 중소기업대출 금리 상승폭) ≃ 1.72조 원

< CD금리와 중소기업 대출 금리 >



< CD금리와 가계 대출 금리 >



자료 : 한국은행 ECOS 상의 시중금리 및 예금은행 가중 평균 대출금리.
주 : 2005년 7월 이전은 금리 하락기, 2005년 8월 이후는 금리 상승기임.

3. 새정부의 과제

1) 2008년 경제 정책의 방향

○ 시장을 통한 공정경쟁 확립과 민간 자율성 확대로 경제 활력 제고

- 정부의 역할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공정 경쟁'과 '효율성'이라는 규칙의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조정하는 기능만을 담당해야 함
 - 따라서 공정거래정책의 기능은 지금과 같은 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본래의 기능인 독과점 폐해 방지,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시장 공정 경쟁 확보로 전환되어야 함
- 공공 부문이나 정부 정책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운용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공기업 민영화 및 워크아웃 졸업 기업 매각 계획, 연기금 개혁 법안, 경제 특구 관련 규제 개혁, 기업 환경 개선 대책 등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자율과 창의가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시장 경제 체제의 확립이 필수적임

○ 기업가 정신과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 마인드 회복

- 투자 활성화 정책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 마인드가 회생되어야 할 것임
 - 우선 기업 활동의 이윤 창출 목적과 기업가의 소유권 보호 중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 기업 활동과 기업인에 대한 일반 인식 개선, 경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기

업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기업가 정신의 부활을 도모

-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동인(動因)인 '성실과 근면'이 다시 최상의 善(善)이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절실함
 -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주의에 따른 사회적 보상 체계 확립, 불로 소득에 대한 중과세 등이 필요함

○ 경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확보

- 기업·행정·복합 도시 건설 등과 같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자원의 낭비 방지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지속 추진이 필요함
 - 2월 정권 교체, 4월 총선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기 영합적이거나 전시(展示)성 정책의 생산을 억제해야 할 것임
- 경제 부처가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경기 조절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黨·政·靑의 정책 조율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2) 새정부의 경제 정책 과제

○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한 기업 투자 회복 촉진

-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요구됨
 -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이중 과세 금지,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의 기업 활동 관련 세법의 정비 필요함
 - 불법 노사 분규시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며, 노사간 자율 교섭 문화 정착을 유도
-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경주
 - 외국인 투자 관련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됨
 - 외국인 투자 전용 특구 조성 계획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구 내 법률, 조세, 회계 등의 경영 지원 서비스와 교육, 의료 등의 생활 인프라 서비스 체계도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환율 안정과 시장 확보에 의한 수출 경기 급락 방지

- 환율 안정을 통한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방지
 -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해외 수출 시장의 다변화 노력을 통해 대외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위축세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임
 - 남미나 CIS 산유국, 중동 등 최근 오일 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에 대한 홍보 등 정부차원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미국 현지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로 볼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심리 침체 방지를 위한 물가 안정

-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과잉유동성 해소 추구
 - 향후 정부의 전반적인 금융 정책 기조는 자산·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급격하고 인위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국내 과잉 유동성의 완만한 흡수를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임
-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
 - 다만 일률적인 요금 동결보다는 공공 서비스 요금의 원가 공개 등을 통해 급박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인상을 허용해야 할 것임

○ 내수 회복 기조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력 확대

-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소비 회복력 복원
 - 특소세와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소비 관련 세제의 한시적 감면을 통해 중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이 필요함
 - 다만 2002년 소비 버블 여파로 장기간 내수 침체를 겪었던 점을 상기하여, 경제 안정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지양되어야 함
-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 산업의 경기 급락 방지
 - 민간 건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여, SOC 투자 확대, BTL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공공 건설 경기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지방 건설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 우량 영세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의 노력도 필요함

○ 한국판 서브프라임 발생 가능성 차단

- 정부의 대외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 국내외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기 수립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전반과,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투기 자본의 국내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유출입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외화 차입 비중이나 유출입 비중이 높은 금융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됨

- 민간의 신용 경색 발생 가능성 차단
 -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 억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임
 - 특히 만약 가계 신용 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현재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긴급 조치들인 신용경색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비과세 채권 발행을 통한 긴급지원기금 조성 등의 정책 시행이 필요함
 - 중소기업 부문 대출 부실화에 대비하여, 감독 당국의 은행 대출 관행과 기업의 자금 운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거시경제실 (3669-4030, juwo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급등세 지속

- 12월 생산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하였으며, 연간으로도 2.7% 상승하여 2006년의 2.3%에 비해 0.4%p 상승폭이 확대됨
- 공산품은 국제 원유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음식료품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0.9%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출하감소 및 연말 수요증가로 어패류, 축산물, 곡물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상승하였음
- 서비스는 외항화물운임, 기계리스료 상승 등으로 운수(1.2%), 리스 및 임대 (1.4%) 부문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음
- 2007년 연평균 생산자물가는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3.6%), 농림수산품(3.4%) 등이 크게 올라 2006년의 2.3%보다 다소 높은 2.7%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11월	12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3)	-	-	
	수요	소내재판매	4.1	4.7	2.9	4.5	7.1	5.3	8.5	5.9	-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1.9	3.9	-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36.3	-
		수출	12.0	14.4	16.3	13.8	14.6	14.1	9.4	17.1	15.5
		공급	광공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10.8
	공급	취업지수 (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74	-
		실업률 (%)	3.7	3.5	3.3	3.2	3.6	3.2	3.1	3.0	-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6	7.2	25.9	24.0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4	61	-17	0.3	45	18	-
무역수지(억\$)		232	161	25	75	24	51	45	21	-9	
물가	소내지물가	2.8	2.2	2.5	2.2	2.1	2.4	2.3	3.5	3.6	
	생산지물가	2.1	2.3	3.1	2.0	1.8	2.5	2.7	4.4	5.1	
	생산지물가	3.9	4.8	5.8	1.8	2.1	3.3	2.5	12.0	-	
	최종재물가	0.3	0.5	0.6	0.4	0.3	1.1	0.6	2.9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잔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국제 금리 급락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유로화에 대한 약세 지속

- 금리: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면서 3.78%까지 하락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동시에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반전하면서 전주말 대비 보험시현 (국채 10년물 : 3.87→3.88%)
- 환율: 달러화는 미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지속한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 폭 강세를 보임에 따라 기술적인 조정을 보이며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 (\$/€ : 1.4743→1.4804, ¥/\$: 108.6→109.3)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환율의 하락

- 주가: 미국 경제 둔화 우려에 따른 미 증시 등 해외증시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1,863.9→1,782.3)
- 금리: 금통위의 콜금리 목표가 동결된 가운데 은행채와 CD의 대규모 만기도래(1월중 26.2조 원) 예상에 따른 차환발행 부담, 생산자 물가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전주말 대비 대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83→5.52%)
- 환율: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수요 및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미 달러화 매도세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하락(938.6→937.6원)

○ (전망) 대외 불안 요인 상존으로 금융시장 혼조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3/4	4/4	1/4	2/4	3/4	4/4	1.4	1.4 ¹⁾
국내	거래소 주가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863.9	1,782.3
	국고채3년(%)	4.57	4.92	4.76	5.26	5.46	5.74	5.83	5.52
	원/달러	946.2	929.8	940.9	923.8	915.1	936.1	938.5	937.6
해외	DOW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2,800	12,853
	Nikkei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4,691	14,388
	미국채10년(%)	4.63	4.70	4.57	5.02	4.59	4.02	3.87	3.88
	일본채10년(%)	1.68	1.69	1.60	1.88	1.69	1.51	1.48	1.44
	달러/유로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4743	1.4804
	엔/달러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108.6	109.3
	두바이(\$/바렐)	57.33	56.71	63.12	66.42	76.64	89.06	92.29	88.73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10) 기준